

## 잡초

이번 겨울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추었던 것 같다. 게다가 늦게 내린 눈이 며칠 발복을 잡아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. 그리고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며칠 전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. 잔디 옆에 흙으로 덮인 땅이 녹색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. 흙만 있어야 할 곳인데 다른 것들이 있었다. 무엇인가 가까이 가서보니 잡초들이었다. 나의 생각에는 아직도 겨울인데 땅은 벌써 봄인 것이다. 그리고 뒤틀로 가보니 겨울 마지막에 늘 피던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이 아닌가?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식을 나만 모르고 있었나 보다. 다른 꽃들과 나무들을 보니 썩이 나오려고 막바지 준비 중이었다. 내가 너무 내 일만 생각하고 살았는가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. 마음에 여유 없는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.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봄은 오고 있었다.

전염병의 문제로 늘 두렵고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인 것 같아 느껴지지만 실은 봄이 오지 않겠는가? 백신 주사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의 결국이 곧 오지 않겠는가? 과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대로 그냥 두시겠는가?

봄이 오는 것 같이 회복의 시간이 곧 오리라 믿는다.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신다. 그 부흥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시작 되리라 믿는다.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?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일에 둑여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.

성경은 "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" (누가복음 5장 25-26절)라고 전하며 소망이 있다고 전한다.

전염병 문제가 해결 되는 날이 소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다. 그 때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. 뒤틀에 벌써 자라고 있는 잡초 약을 이번 주에는 꼭 뿌려야겠다. 막 자라려고 할 때에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몇 달을 고생하기 때문이다. 올해도 한 발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. 하지만 영적인 생활만큼은 한 발 늦는 삶을 청산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지런한 일꾼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걱정은 사라진다.